서용좌 교수 장편소설 '침묵과 침묵 사이' 출간



인간은 이 세계에서 무엇으로 존재하며, 삶의 유한함을 마주한 인간에게 침묵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침묵 속 길을 찾다'… 한 남자의 고독과 사유

70-80년대 격동 시대…父 잃은 상처·母 맹목적 신앙 속 성장

사랑 앞 뒷걸음질치는 주인공 노승욱 삶 통해 존재 의미 탐색



아버지를 잃은 상처와 어머니의 맹목적인 신앙 속에서 침묵으로 성장한 한 남자의 삶을 통해 인간 존재의 의미를 되짚는 장편소설이 출간됐다.

서용좌 작가가 신작 장편소설 '침묵과 침묵 사이'(푸른사상)를 펴냈다. 푸른사상 소설선 76번으로 출간된 이번 작품은 1970-80년대 엄혹한 시대를 배경으로 고독과 사유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았다.

소설의 주인공 노승욱은 1969년 3월29일 우리나라 최초의 추기경이 임명되던 날 태어났다. 다섯 살 때 바다에 나간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하면서 그의 기억은 고독으로 시작된다. 아버지의 부재가 남긴 트라우마와 어머니의 맹목적인 신앙은 그의 성장 과정에 깊이 자리한다.

승욱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한 채 살아가며, 사춘기 시절의 짝사랑에서도 대학 시절의 서툰 연애에서도 뒷걸음질 치기 바쁘다. 그의 내면에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은 공포가 자리하고 있어서다.

책을 읽고 역사를 전공하며 신학에도 관심을 기울이지만 좀처럼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한다. 모든 일에 회의하고 의문을 품으며 깊이 사색하지만, 정작 자신의 속내는 말로 꺼내지 못한 것이다.

서 작가는 이러한 승욱의 내면을 통해 사유와 침묵의 관계를 들여다본다. 사유 없이 살아가는 삶뿐 아니라 자신의 사유를 침묵하지 않고 떠벌리는 삶 역시 무의미하다는 인식이다.

작품에서 침묵은 주인공의 성장 과정과 내면을 관통하는 중요한 요소다.

대학 시절 승욱의 모습을 묘사한 대목 '침묵은 당연한 결과였다. 말은 입술 안에 갇혔고, 글자들은 책 속에서 먼지 조각들이 되어 증발해 버렸다'에서는 그가 세상과 맺는 관계가 드러난다.

소설은 개인의 상처와 고독에서 출발해 인간 존재에 대한 사유로 나아간다. 그 과정에서 승욱이 마주하는 것은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작고 초라한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 역시 무한한 시간 속에 잠시 존재하는 찰나의 생물일 뿐이다. 이러한 인식은 승욱에게 오히려 안도감을 안긴다.

소설의 마지막에서 승욱은 아버지를 잃은 기억이 남아 있는 바닷가로 향한다. 그동안 두려워하며 가까이하지 못했던 바다에 맨발로 선 그는 비로소 아버지를 애도하고 자신이 머물 곳을 깨닫는다.

한편 서용좌(사진) 작가는 2002년 '소설시대'에 단편 '태양은'을 발표하며 등단했다. 장편소설 '열하나 조각그림', '표현형', '흐릿한 하늘의 해', '숨', '날마다 시작' 등을 펴냈으며 연작소설 '희미한 인(생)', 소설집 '반대말·비슷한말' 등을 발표했다. 이화문학상, 광주문



학상, PEN문학상, 광주광역시 문화상 문학부문 박용철문학상, 조연현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전남대학교 독일언어문학과 명예교수다. /오복 기자

AI가 답하는 시대, 교육의 역할

김춘식 'AI시대, 인문학에 미래교육을 묻다' 출간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몇 초 만에 질문에 답하고 글까지 써내는 시대, 지식 전달이 더 이상 학교만의 역할이 아니게 됐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에게 더욱 중요해지는 능력은 무엇일지 고민하고 미래교육의 역할에 대해 인문학적 관점에서 풀어내는 책이 나왔다.

김춘식 저자는 신간 'AI시대, 인문학에 미래교육을 묻다'(소명출판)를 펴냈다.

이 책은 저자가 지난 10여년간 신문과 방송, 학술지 등에 발표한 칼럼을 다듬어 엮은 것으로 문해력과 교육 격차, 시민교육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식을 담았다.

저자는 AI 시대의 교육 문제가 단순히 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있지 않다고 진단한다.

문해력 저하와 생성형 AI에 사고와 판단을 맡기는 '지적 외주화', 알고리즘의 영향력 확대, 데이터 소유권과 디지털 공간에서의 역사 왜곡 등 다양한 문제를 짚는다.

특히 정답을 빠르게 찾는 능력보다 문제를 발견하고 질문을 만드는 힘,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강조한다.

책은 베이컨의 '새로운 아틀란티스',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등 고전을 통해 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되짚는다.

또 인간이 오래전부터 고민해 온 과학기술의 가능성과 위험을 오늘날 AI 시대의 문제와 연결한다.

이와 함께 독일의 이원화 직업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기억문화 등도 살펴본다.

더불어 교육 현장에서 학생이 직접 주제를 정하고 자료를 읽으며 토론하는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서술형·논술형 평가와 발표·토론 교육, 직업교육 개편, 알고리즘 투명성과 시민 참여형 기술 거버넌스 등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한다.

저자는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넘어, AI가 많은 것을 대신하는 시대에도 인간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며 미래교육의 해답을 기술이 아닌 인간의 사고와 판단에서 찾도록 이끈다. /오복 기자

노벨상 '한강' 문학세계, 中 대학생에 소개

백수인 조선대 명예교수, 광동외국어대 특강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문학세계를 중국 대학생들에게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백수인(사진) 조선대학교 명예교수는 오는 3-11일 중국 광동외국어대학교 초청으로 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와 문학 강연을 진행한다. 백 교수는 오는 6-8일 열리는 '지역국별학·운산 포럼(2026)'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한강 소설에 나타난 역사적 기억과 인간성'을 주제로, 한강의 소설을 통해 5·18의 역사적 비극과 집단적 기억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되는 양상을 살펴보고 고통과 상처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의지를 조명한다.

또 광동외국어대학교 등에서 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강의 소설로 읽는 인간의 마음'을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오복 기자

새로 나온 책



▲이것은 전통이 아니다=장유승 저

우리가 오랫동안 전통이라 믿어온 관습의 기원과 의미를 되짚는다. 나이를 따지는 문화부터 명절 차례, 조상에 대한 예법까지 익숙한 풍습이 언제, 어떤 이유로 생겨났는지 살펴본다. 고전 연구자인 저자는 근대에 만들어진 관습이나 본래 의미가 잘못 알려진 사례 등을 기록과 근거를 통해 짚어낸다. 전통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지키거나 낡았다는 이유로 폐기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오늘날 전통이 지닌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성균관대학교출판부·1만7천원



▲까칠한 카페에 어서 오고래=보라 글·그림

바닷속 카페를 운영하는 까칠한 고래 씨와 바다 친구들이 벌이는 유쾌하고 따뜻한 소동을 담은 그림책이다. 토마토 에이드를 만들던 고래 씨는 믹서기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하얀 물체를 발견한다. 친구들이 알이라고 추측하며 돌보기 시작하자 고래 씨도 툴툴거리면서 몰래 정성을 쏟는다. 말투는 까칠하지만 행동에는 다정함이 묻어나는 고래 씨를 통해 겉모습만으로 타인을 판단하지 않는 마음을 전한다. 제2회 한국그림책출판협회 그림책 공모전 당선작이다. /키큰도토리·1만7천원



▲시인을 포기하고 있습니다=김희주·김승욱·강정모·장영은·이수인·김서율·정환길·이민서·이시안·윤채진 저

저마다의 이유로 시인의 꿈을 내려놓은 이들이 자신의 작품과 이야기를 엮은 공동 시집이다. 생활의 무게와 재능에 대한 의심, 계속 글을 써나가는 두려움 속에서 꿈을 포기하기까지의 사연을 담았다. 제목에 담긴 '포기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쉽게 끝맺지 못하는 마음을 보여준다. 시인을 꿈꾸던 시절의 작품과 그 시간을 지나온 이야기를 통해 한때 간절히 바라던 꿈의 의미를 돌아보게 한다.

/포레스트웨일·1만7천800원



▲대화를 한다는 것=피에르 쌍소 저·이진희 역

비대면 소통이 일상이 된 시대에 얼굴을 마주하고 나누는 대화의 가치와 의미를 탐구한다. 프랑스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저자는 문자메시지와 SNS, 온라인 회의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직접 만나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를 철학과 사회학의 시선으로 풀어낸다. 대화를 단순한 정보 교환이나 의사 전달 수단이 아닌 타인의 존재를 느끼고, 서로 다른 세계를 만나며,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발견하는 인간 고유의 경험으로 바라본다. /드림셀러·1만8천800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국
· 중앙지국 222-8171 · 상무지국 453-2554 · 유동지국 222-8171 · 오치지국 261-9461
· 산수지국 224-4188 · 광천지국 374-2120 · 운암지국 529-3548 · 문흥지국 261-9462
· 학운지국 673-6836 · 진월지국 676-2726 · 용봉지국 261-1503 · 일곡지국 573-3200
· 화정지국 372-9140 · 봉선지국 673-6836 · 신가지국 954-1420 · 첨단지국 971-7374
· 금호지국 376-7153 · 백운지국 673-0123 · 양산지국 574-3745 · 치평지국 371-9584
· 풍암지국 603-0311 · 두암지국 266-1920 · 하남지국 951-9954 · 수완지국 955-0451
· 노대지국 674-3581 · 농성지국 362-4102 · 운남지국 952-1687 · 광산지사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나주지사 061)335-0005 · 보성지사 061)852-6644 · 무안지사 061)453-3645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광양지사 061)793-6800 · 화순지사 061)373-7795 · 함평지사 061)322-0882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구례지사 061)782-4696 · 장흥지사 061)863-6800 · 영광지사 061)353-5133
· 신안지사 061)980-8300 · 담양지사 061)383-5566 · 강진지사 061)432-8899 · 장성지사 061)394-3636
· 순천지사 061)746-1600 · 곡성지사 061)362-5746 · 해남지사 061)535-5849 · 완도지사 061)555-0134
· 여수지사 061)651-6433 · 고흥지사 061)832-6290 · 영암지사 061)473-7151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